

# 할아버지들이 참여하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 이타적 유전자

박재항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겸임교수



세 할머니가 사각형 밥상의 꼭지점 하나씩 담당하면서 직각 이등변삼각형을 이루고 양반다리로 앉았다. 강한 구심력이 작용하듯, 세 분의 머리가 중간 방향으로 모이며, 가볍게 무릎을 꿇은 자세로 되면서 팔꿈치를 식탁 모서리에 얹었다.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덩그러니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 웅크린 정사각형을 이뤄야 할 네 분의 대형이 이등변삼각형 한 변에 길쭉하니 도망가려는 다른 삼각형 하나를 억지로 붙여 놓은 듯한 모양이 되어버렸다. 할머니들의 자장에서 빠져나가려는 원심력이 작동하듯 할아버지는 엉덩이를 양반다리 자세로 바닥에 붙이고 있었지만, 허리부터 바깥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길게 빼낸 목에서 얼굴은 아예 탁자 반대편을 향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휩쓸기 전에 서울 변두리의 한 대학에서 특강을 한 후에 초대된 교수 선배와 함께 들른 근처 식당의 옆 자리에 그렇게 할머니 세 분과 할아버지 한 분이 묘한 대형으로 앉아 계셨다. 할머니들은 대형을 갖추고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가방에서 책을 꺼내서 탁자 위에 펼쳤다. 책에 나온 단어를 한 명이 소리 내어 읽으면, 다른 이들이 따라하고 이어서 뜻을 외친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허름한 식당인지라 바깥 길의 자동차 경적에 지나는 이들의 떠드는 소음까지 들려오니 할머니들이 공부하며 내는 소리는 음악처럼 들렸다. 마침 할머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창신아트홀 열린 진형중학교 평생교육시설 졸업식에서 참석한 만학도들이 격려사를 듣고 있다. 뉴스시

니들이 연습하는 과목이 음악 성격을 맡아 지닌 언어인 중국어였다.

“자네가 중국어 좀 하잖아? 가서 도와드려.” 특강을 했던 대학 마을의 주민센터에 일반인들을 위한 강좌가 꽤 많이 열려 있는데, 거기서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할머니들 같다고 선배가 설명을 하며 농담을 곁들였다. 중국어를 원래 잘한 적도 없고, 알량하게 아는 것들도 다 까먹었다고 손을 저으며 말했다. “차라리 제가 저 할머니들께 배워야겠는걸요.” 70이 넘어 보이는 연세로 보이는데, 외국어를 새롭게 배우는 태도는 정말 배워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뭔가 새롭게 배워볼까 할 때의 나의 태도는 마치 그날 수업 열기에 뜨거운 할머니들과 뚝 떨어져 혼자 있는 꼭지점 할아버지처럼 된다. 그런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그리 낯설지는 않다.

역시나 코로나19 창궐 전에 강가의 자전거도로를 달리는데, 어느 종교 단체의 신도 운동회 같은 게 열리는 걸 봤다. 전형적인 학예회 춤 악곡이 들리고 운동복을

맞춰 입은 할머니들이 운동장으로 나와서 대형을 만들고, 같은 동작으로 꽤나 오래 연습을 한 듯한 춤동작을 선보였다. 종교단체의 노인학교 이름을 건 플래카드를 할아버지 두 분이 양쪽에서 잡고 서 있었다. 그나마 할아버지 두 분이 노인학교에 적을 두고 있고, 서서 뭔가 공연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고마웠는데, 춤을 추는 대형 속에서 삐죽 어긋나 있는 두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할아버지들은 박자를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아예 맞춤 생각을 하지 않고 우뚝하니 서 있었다. 주위 할머니들이 눈치를 주다가 소매를 잡고 끌어도 꿈쩍하지 않으며 절연한 저항의 기운까지 느껴졌다. 기동처럼 서 있는 두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할머니들은 정해진 공연을 마친 후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이, 할아버지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1970~80년대에 노인들의 장기자랑과 노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연, 감동적인 사연의 공개 등이 어우러진 <장수만세>라

는 인기 TV프로그램이 있었다. 출연 노인들 중에서도 꽤 연세가 많은 편인 할머니 한 분이 매일 경로당에 가서 놀 정도로 건강하다고 말씀을 하자, 사회자가 장난스럽게 농담을 했다.

“할아버지들과도 같이 노세요?”

“아녀. 경로당에 남자, 여자 딱 나눠져 있어.”

“그래도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계신 데로 들어오면요?”

“그럼 죽지 죽어.”

주먹까지 휘두르며 하시는 말씀에 사회자를 포함해 모두 박장대소하는데, 할머니가 한 마디 보았다.

“근데 남자들은 원래 경로당에 오지도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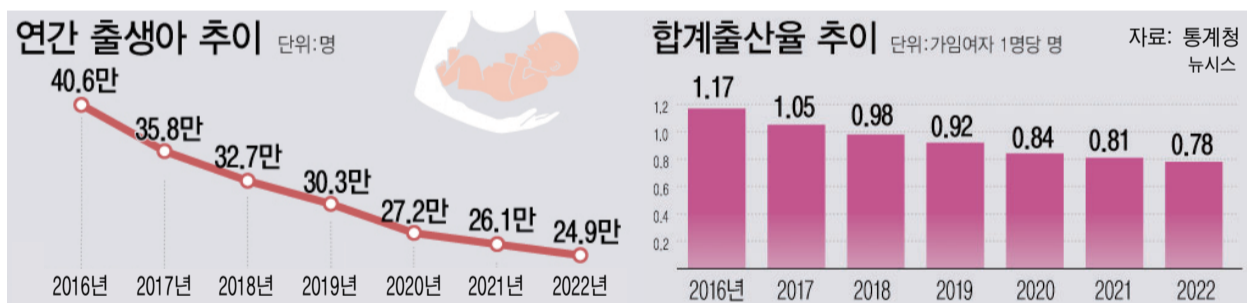
40년 전에도 할아버지들은 모여서 놀지 않았다. 노인 특히 가부장으로 할아버지는 권위가 우선이었다. 집안과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견하는 게 당연했다. 힘을 잃고 밀려났다는 ‘뒷방 늙은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그 역시 뒷방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존재감을 보여준다. 대체로 나이를 기준으로 위계가 서는 마을 분위기에서 노인이 말을 하면 어쨌든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 이제는 대부분 가정에서 노인을 위한 뒷방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한 사람이 챙겨야 하는 것이 많아진 지금 이전에 노인들이 들어갔을 뒷방은 옷방이 되고, 잡동사니 창고가 된다. 대부분 노인들 자신이 몸과 정신이 뒷받침이 되는 한 아래세대와 떨어져 살기를 원하기도 한다. 그런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이 필요하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떨어지며 은퇴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었

다. 그들을 돌봐 준다는 복지 이상의 대책이 선진국 거의 모든 정부에서 큰 현안이다. 대책으로 초중고와 대학의 공식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생교육이라고 보통 말하는 데, 일컫는 단어가 시대가 지나며 달라졌다. 20세기 내내 영어로 ‘continuing education’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공식 교육의 연장선상에 초점을 맞춘 단어를 썼다. 그런데 2000년 전후부터는 생애 끝까지를 의미하는 ‘lifelong education’이 많이 쓰이고 있다. 담당하는 교육기관 명칭도 기존의 대학 등을 기준으로 한 ‘개방대학(open university)’, ‘확장(extension)’, ‘외부(outreach)’ 등을 붙여 쓰다가 ‘지역공동체(communit)’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춘천시에 자리한 한림대의 경우 ‘평생교육원’을 작년에 ‘커뮤니티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꿔, 지역 주민의 자기계발과 소통의 중심으로 기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광, 바이오, IT산업과 같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과 함께 이주민과 노인들을 위한 지역 통합에도 앞장 서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많은 대학들이 나서고 있다. 그들에게 앞에서 본 것처럼 완강하게 자기만의 벽을 쌓는, 불만 투성인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게 지난한 과제이다. 할머니 손에 억지로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대학 평생교육의 중국어 수업이나 종교단체의 노인학교에 발을 들여 놓은 할아버지들에게서 그래도 희망의 빛을 본다.

##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 전 권 천연가죽 리클라이너 소파석 (K/불식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포티마켓 총창로점 062-222-7733

###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1관	엔트맨과 와스프:퀸템매니아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2관	서치 2
3관	엔트맨과 와스프:퀸템매니아
4관	카운트
5관	엔트맨과 와스프:퀸템매니아
6관	서치 2
7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상견니/메간
8관	어메이징 모리스/영웅/살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9관	카운트/TAR 타르/교섭

광주광역시 동구 총창로안길 12

▶ 전용 주차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첫영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

▶ 제휴 주차장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

▶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09:00-오후20:30까지

※ 3시간 무료 주차이유,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드림플러스리미츠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주차 기능 (제약: 주차 대차 10대에 한함)

## 보약, 흥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한약방

6년근 흥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